

“절마다 한글대장경 갖췄으면”

수요 인터뷰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석주스님

올해로 창립 32년을 맞는 동국역경원의 활동을 뒷받침할 역경원후원회가 오는 21일 서울상상동 봉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는다. 역경원후원회는 팔만대장경 모시기운동과 역경기금을 지원할 각종 계획을 수립, 실행할 예정이다. 창립 준비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역경원후원회장으로 추대된 석주스님을 지난 10일 삼정동 칠보사에서 만났다.

우리시대 절대절명 불사

역경사업을 적극 지원할 동국역경원 후원회가 만들어지고 스님께서는 후원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30여 년전 역경원에 참여하신 것을 비롯해 남달리 역경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감회가 크실 줄로 짐작됩니다.

▲역경원이 발족된 해가 1964년이었어요. 운허스님이 역경원장을 하시고 나는 간사소임을 맡아 왔어요.

원래 역경원이 생기기 전에 운허스님을 고시고 역경을 했지요. 선학원에서 있었는데, 그때 《법화경》《열반경》《유마경》《승

만가야. 물론 창당스님과 당시 김법린 동국대총장도 배놓을 수 없지. 운허스님은 다시 태어나도 역경을 하겠다고 하신 분이야. 지금 역경원장인 월운스님이 그 이 제자인데, 월운스님이 다 마쳐야 될 거야. 운허스님 같은 원력을 가져야 돼.

—역경은 우리시대 절대절명의 불사라고 생각합니다. 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역경원을 지원할 생각입니까.

▲절마다 우리글 팔만대장경 1필씩 모셨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절마다 화엄경 한필씩 모셨는데, 요새 생긴 절에서는

약력

- 1909. 3. 11 경북 안동 생
- 1928 출가, 범어사 강원대학교과 졸업
- 불국사 주지, 선학원 이사장, 동국역경원 부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동국학원 이사, 중앙승가대 학장 등 역임
- 현재 조계종 원로의원, 중앙승가대 명예학장, 칠보사 조실
- 저서 《불교근세백년》



경전 읽기 등 촉진...역경 진흥회와도 협조 '불자들 역경 참여를'...불은에 보답하는 길

만경》《부모은중경》《우란분경》 등을 번역했다. 번역은 운허스님이 하시고, 나는 출판하는 일을 주로 했지. 그러다가 동국대학에 역경원이 생겨서 모두 그리로 갔어. 그때 번역한 경전들이 지금은 어디가고 《열반경》《유마경》은 아직도 내가 갖고 있어요.

—역경원이 설립되고 초창기에는 대단한 열의와 사명감을 갖고 역경에 힘썼다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려 주십시오.

▲우리말로 된 대장경을 이해하는 것이 구나 생각했지요.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 1514부 약 6천권을 완간할 방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포교와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들이 불은에 보답할 길이 이것이지나 하고 감격스러웠지요.

특히 운허스님의 원력이 컸어요. 운허스님은 어려서 한학을 배우고 박한영스님에게 불교를 배웠으니 역경을 아주 잘 했어요. 역경원은 운허스님의 원력으로

그렇게 잘 되려구.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다고 매일 조석으로 되뇌이면서 대장경 한필 모시기 않으면 말이 되겠어.

또 돈도 있어야 해. 번역료도 많이 올리고, 역경원 사람들 월급도 올리고 사람도 더 뽑아야 일이 제대로 되지. 후원회를 만든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2, 3백만원씩 기금을 내는 불자들이 여럿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불자들 모두가 이런 불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회도 열 작정이에요. 신문에서도 많이 알려줘야 해.

—스님께서는 이사장직을 맡고 계신 역경진흥회도 있는데 후원회를 만들면 같은 일을 하는 단체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사람들 생각새가 다르고 말소리가 제각각이듯이 여기저기서 힘을 모으겠다는 좋은 일이지. 역경진흥회에서는 올해 5천만원을 역경원에 지원하기로 했어, 새로

생기는 후원회는 한글대장경 모시기, 책 읽기운동을 하는 것이니까 서로의 모자람을 메우는, 말하자면 상호보완하는 것이지.

2천만 불자가 후원 회원

—7월 현재 역경목표량 250권 가운데 174권이 우리말로 번역·출판되었습니다. 나머지 76권도 마무리짓기 위해 사부대중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역경에 임해야 할까요.

▲올해도 정부에서 3억5백만원, 역경진흥회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불자들의 협조가 없어서 일이 중단되거나, 역경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이 책판매에 매달려 번업을 소홀히 하면 불자들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자들이라면 모두 후원회원이 돼야 해요. 회원이 돼서 직접 한글대장경을 구입하거나 남에게 읽도록 권해야지요. 역경원에만 맡겨두

고 모른체 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나도 나이가 90이 가까워 오지만 역경원 사람들 열심히 하라고 나왔어요.

—이곳 칠보사 '문법당'의 편액은 모두 한글로 써여 있어 특이합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불교성전 퍼내는 일에 앞장서 오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아무리 좋은 부처님말씀이라도 알아들어야 부처님말씀이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했잖아. 요즘 사람 백백 가운데 한문을 좀 안다는 사람은 절반도 안될거야. 한문을 몰라도 불법을 알도록 해야지. 법문을 왜 부처님말로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잖아. 경전도 편역도 마찬가지야. 봉선사 법당편역도 한글인데, 그쪽 것은 돌아가신 운봉거사란 분의 글씨야.

—스님, 오랜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정신이 가물거리 앞에 본 것은 있어 버리지만 요즘에도 책보고 건강해. 지난 말에는 전라도 완도에도 다녀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글도 잘쓰고 포교도 잘해. 웬만한 절에서는 유치원도 하잖아. 젊은 사람들이 나서니까 다 잘 될 거야.

정성운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유혁 <천태종 신도회장>

자신의 생활을 사실 이상으로 과장하여 수행을 거듭해가고 있는 양 꾸며간다면 이는 분명히 자기위장인 동시에 불망어(不妄語)의 계를 어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을 써가는 동안 나는 그 어느 원고를 쓸 때보다도 긴장한다. 몇번이고 자기 양심의 세계를 노크하게 된다.

그러나 한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을 써가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는 점이 도리어 다행스러운 것이다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성찰(自己省察), 그 자체가 수행이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극복(自己克服)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인간을 가리켜 감정의 동물이라 말하기도 하며 거의 무한적인 욕구를 주관적으로 추구해가려는 배타적인 욕망의 결정체라고도 말한다.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보람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법제적인 요구에 능동적으로 순응할 줄 아는 충실

나마 깨닫게 되었다.

불가의 오묘한 세계를 차차 인식하게 되자 구인사를 위시한 전국의 천태종 말사가 나의 심사(心畵)인 양 느껴지고, 큰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스님으로부터 풍기는 체취는 녹음방초 우거진 계절의 자연향과도 같이 감도는 내용이었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선친께서 주신 각골 혼(刻骨訓)은 바로 나에게 있어서는 수행의 지표가 되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첫째는 욕기(欲氣)의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수양을 계속해야 한다는 계훈(戒訓)이었다. 용돈이 궁하고 집안에는 우환이 있는 상황에서 큰 돈봉투를 길에서 쫓겨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돈에 대한 욕심 내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 질문은

부친유훈 받들어 '참불자' 노력 '욕심이기고 부끄럼 없는 삶' 수행 과제

한 종범자(從範者)로서 최고선(最高善)을 지향하여 아름답게 생활해가려 노력하는 자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내가 50세의 나이를 훨씬 넘을 때까지도 수심차례 들었던 말 속이었기에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다.

나의 입장을 되돌아 보면, 지난날의 생활양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되뇌이게 된다. 내가 천태종 종단과 인연을 맺고 신도가 되고, 신도회 중앙회장이 되기까지는 곡절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다.

둘째는 타계하시면서 남기신 3가지 유훈(遺訓)이다. 하나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잘 새겨들어서 익히라는 것이었고, 둘은 세인(世人)에게 부끄럼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고, 셋

은 후손에게는 언제나 떼어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운명직전에 몸속 깊이 간직하셨던 비상금 50만원을 내주시면서 그 유언의 뜻이 담긴 기념품을 만들어 모든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선친 묘역에 유언비를 세워, 성묘 때마다 자손들이 함께 읊미하는 길을 터놓았다.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이냐 하는 자기성찰을 계율리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애써가고 있다. 이것이 수행의 한 단면이라고 할해도 좋을는지 모르겠다.

반야심경의 구절중의 하나인 심무가애(心無懼礙)하기 때문에 무유공포(無有恐怖), 즉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수행을 끊임없이 힘써야겠다는 것을 나는 자주 다짐한다.

선친께서 한학을 위주로 하는 구학문 세대였다고 한다면 나는 구학문을 어느 정도 겸비한 신학문의 세대였다. 선친께서는 부자간에 서로 의사가 더 잘 접근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막내인 나에게 더욱 큰 관심을 두셨던 것 같다. 선친께서 베푸신 그 깊은 뜻도 모르고 연일 동문서주하여 가며 뛰어다녔던 나의 입장만을 강변했었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었음을 뒤늦게

반야심경의 구절중의 하나인 심무가애(心無懼礙)하기 때문에 무유공포(無有恐怖), 즉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마음수행을 끊임없이 힘써야겠다는 것을 나는 자주 다짐한다.

과연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기건설(自己建設)의 과제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을까? 이것이 일상적인 수행의 과제이자 수행의 내용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 (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집병의원 건강장애

간강인용 비록 건강장애

당뇨 위장·변비·천식 등 질병상담

전화 (02)552-1470 (대) / 팩스 562-3205

문의처 상담 및 자료우송 주소: 강남구 역삼동 827-4 금38B/D 2층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절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 · 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장

구직광고

사찰운전기사·男

“가족과 함께 사찰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연락처 (042) 252-5422

합작

운동화 제조하는 분과 합작을 원합니다

불교도러면 더욱 환영합니다

☐ 봉제공 모집 ☐

나이 35~40세 女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하는일: 감바, 배낭, 텐트 수리, 자구교환, 침식제공

Rocky Mountain Footwear Ltd., P.O.Box 2607, Banff, AB, TOL OCO Canada Phone: (403)762-2032 / FAX (403)760-3111

명문대가진 현대미술가 김기림

명문대가진 현대미술가 김기림

2분도원미 (역기아름다)

3분도원미 (역기아름다)

4분도원미 (역기아름다)

5분도원미 (역기아름다)

6분도원미 (역기아름다)

백10분도 (별은이정히)

“입맛대로 주문, 배달”

조각의 열을 지키는 팔브르계역기운동중앙회 TEL. (02)231-5421~2 235-1846~7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출판

운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보기업

전화 (02)279-2715

팩스 (02)275-3739

한민족

정통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장

스님 및 지도교사를 위한

친불가 피아노 반주 3개월 완성

교과특성

개인지도 원칙, 레슨기간 자유선택, 친불가를 통한 음악이론 및 실기지도, 시청청음 별도수업 실시

· 등록: 수시접수 (725-7527~9)

· 장소: 불교교육연구원 (조계사 옆)

불교교육연구원

유 조각실 (불교미술원)

부처님 조성

청동불 조성

대불조성

천불전

개금

제14회 불교미술전 우수상 수상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16-1 전화 713-3560, 214-8963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0357) 541-4705 야간: (0351) 847-2001